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2대 총선 특집: 사전투표율 분석

2024. 04. 08.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및 이전 선거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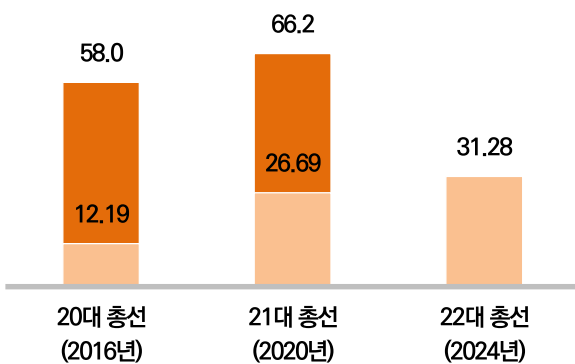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21대 총선 대비 4.59%포인트 증가

4월 10일 투표일 직전 금요일~토요일인 4월 5일~6일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했다. 2년 전 열린 20대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5.65%포인트 감소했으나, 4년 전 열린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26.69%)보다는 4.59%포인트 증가해,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21대 총선 대비 4.59%포인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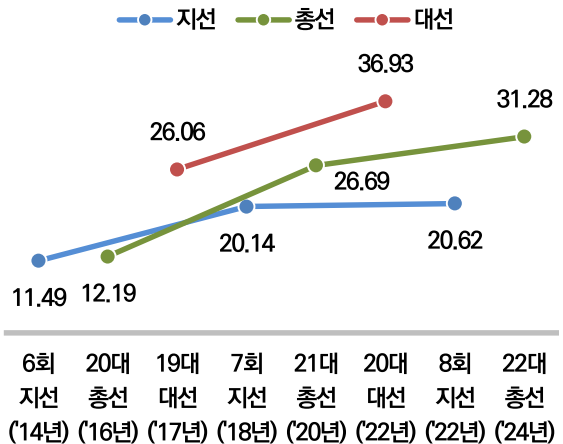
(단위 : %)

■ 최종투표율 ■ 사전투표율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

(단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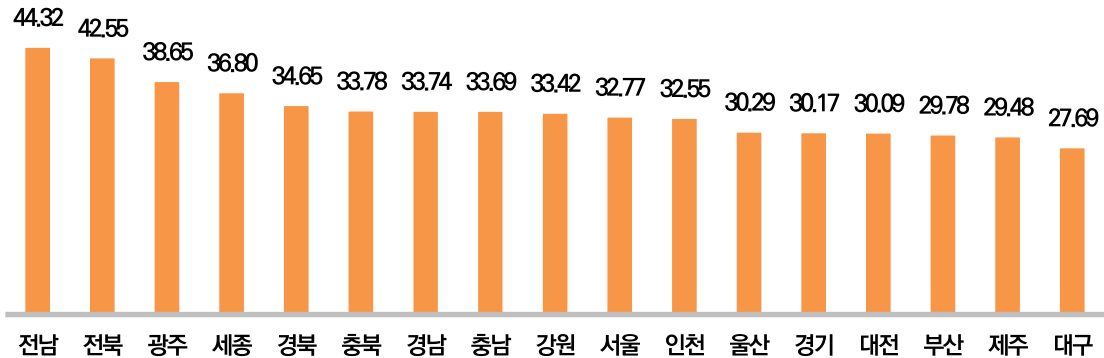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치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 평균 44.32%,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대구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 평균은 27.69%로 가장 낮아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 평균은 44.32%이다. 특히 전남 신안군(54.81%), 전남 곡성군(50.51%), 전남 장성군(50.04%)은 사전투표임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마쳤다. 반면 대구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은 평균 27.6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대구 달성군(22.88%)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대구 달서구(24.29%), 대구 북구(24.68%) 등도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평균,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아

(단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비고: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의 평균값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투표율과는 상이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선거구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상위 10곳, 전라남도(6곳)와 전북특별자치도(4곳)가 양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하위 10곳 중 5곳이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단위 : %)

사전투표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장흥군
	54.81	50.51	50.04	49.77	48.90	48.30	47.97	47.68	47.37	47.27
사전투표율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오산시	대구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22.88	23.13	24.29	24.55	24.68	24.93	25.03	25.05	25.13	25.3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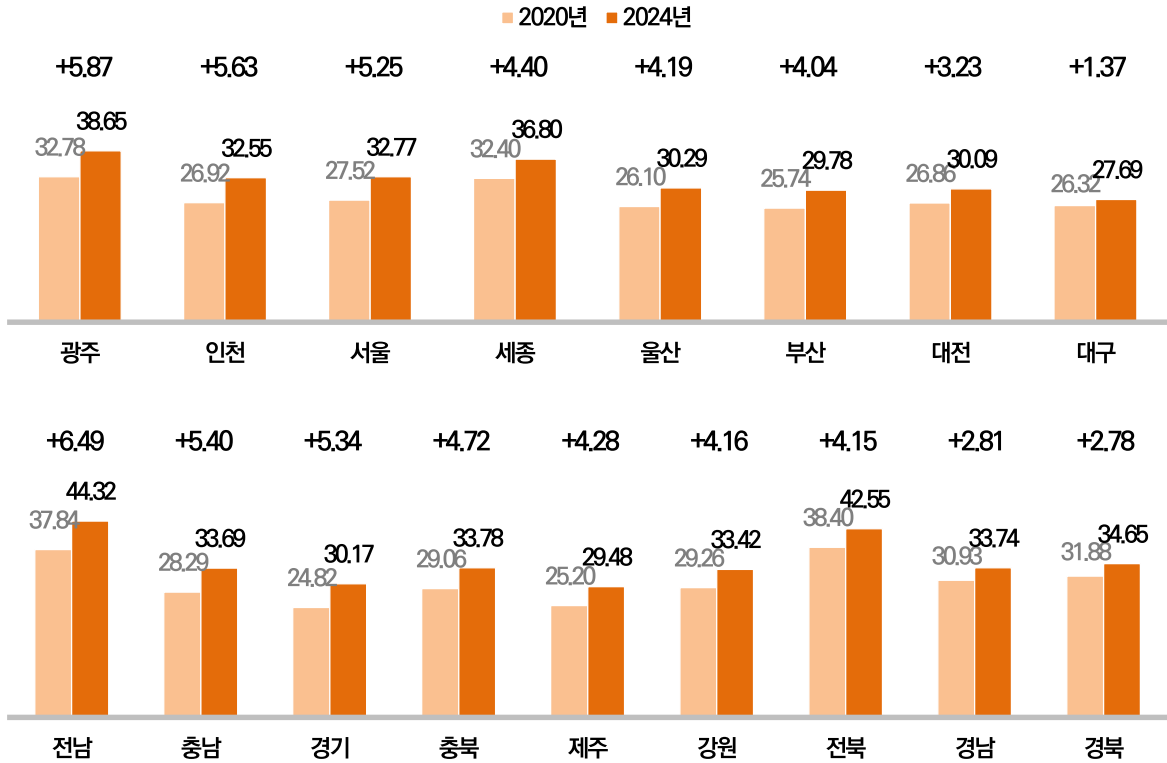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한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평균은 모두 증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8회 지선 대비 사전투표율 증가폭 커

각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 평균값은 4년 전인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모두 증가하였다.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전라남도로, 21대 총선(37.84%) 대비 6.49%포인트 높아졌다. 광주광역시(5.87%포인트), 인천광역시(5.63%포인트)의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대구광역시(1.37%포인트 증가), 경상북도(2.78%포인트), 경상남도(2.81%포인트)의 사전투표율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년 전에 치러진 대선 및 지선과 비교하면, 각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 평균값은 대선보다는 낮고, 지선보다는 높다.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평균은 지난 지선 대비 20.71%포인트 높아졌고, 세종시 또한 지난 지선 대비 14.41%포인트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한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평균은 모두 증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증가폭이 크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증가폭은 작아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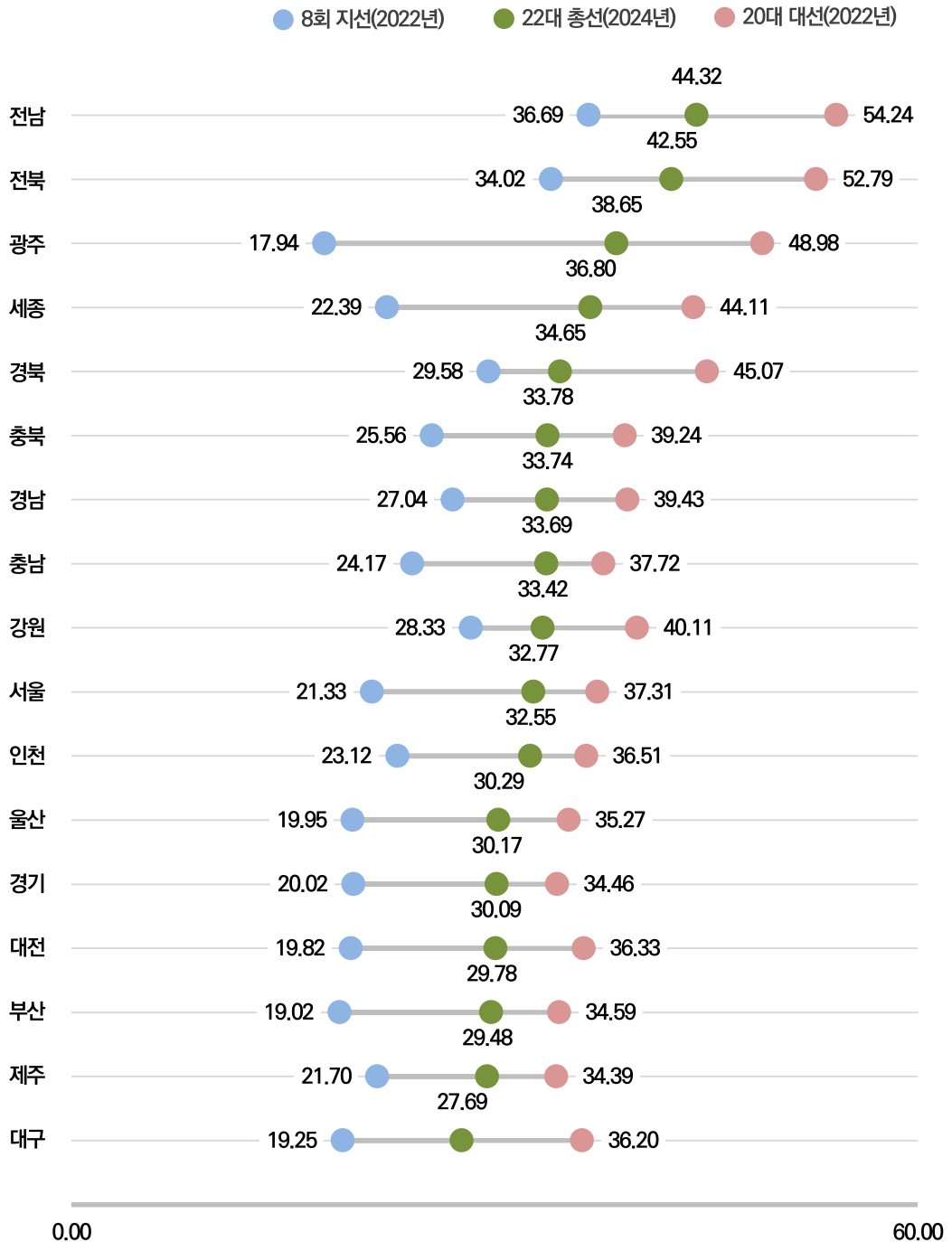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비고: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의 평균값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투표율과는 상이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선거구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평균 변화 비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비고: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의 평균값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투표율과는 상이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선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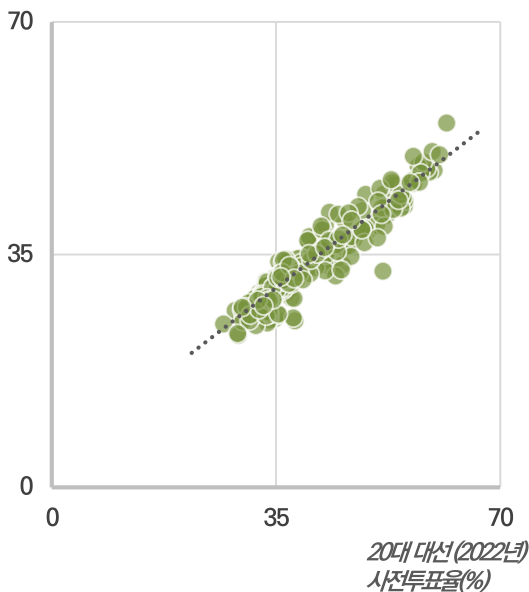
2 20대 대선, 21대 총선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비교

20대 대선, 21대 총선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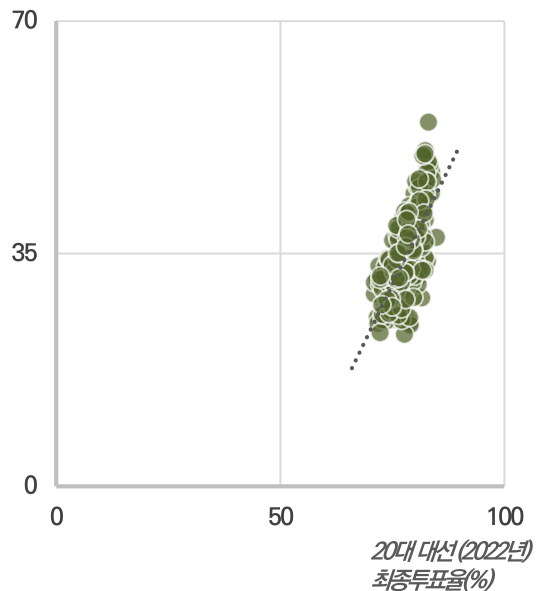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 및 최종투표율과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간 관계를 확인해 보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최종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의 투표율과 비교해봐도, 21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번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도 높다. 투표율을 선거에 대한 관심도로 본다면, 2년 전 대선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0대 대선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도 높아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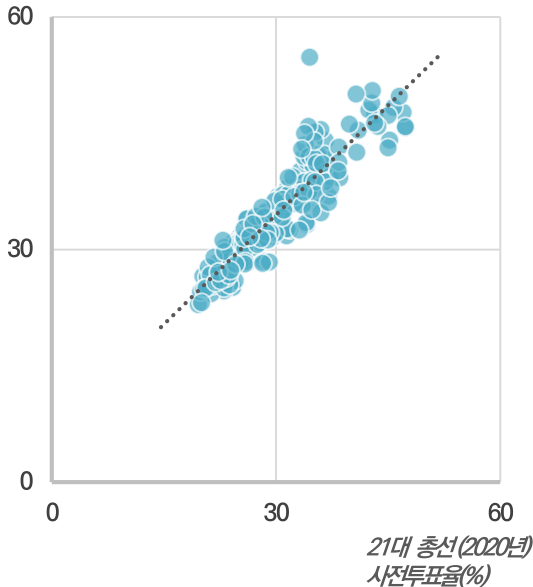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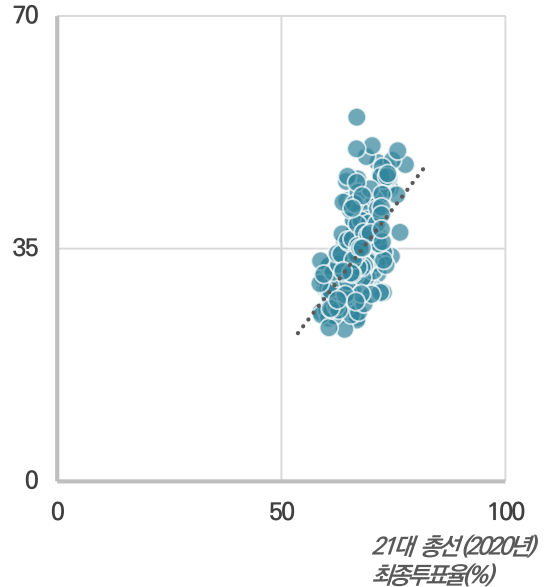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1대 총선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도 높아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대 대선 대비 사전투표율 하락폭 큰 기초자치단체는 울릉군, 영덕군, 포항남구 등 21대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 상승폭 큰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20대 대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투표율이 하락했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19.19%포인트 하락), 경북 영덕군(13.33%포인트 하락), 경북 포항 남구(12.89%포인트 하락) 등이다. 반면 서울 도봉구(1.46%포인트 하락), 충남 예산군(1.94%포인트 하락), 충남 청양군(1.95%포인트 하락), 부산 기장군(1.98%포인트 하락) 등은 20대 대선 사전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개 기초자치단체는 21대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남 고흥군(1.89%포인트 하락), 전북 남원시(1.57%포인트 하락), 경북 의성군(1.45%포인트 하락)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전남 신안군(20.31%포인트 상승), 전남 영광군(11.60%포인트 상승), 전남 진도군(11.16%포인트 상승) 등은 21대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곳이다.

22대 대선 대비 사전투표율 하락폭 큰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7곳은 경북, 3곳은 전남
22대 대선 대비 사전투표율 하락폭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도봉구, 충남 예산군, 충남 청양군 등의 순

(단위 : %p)

22대 대선 대비 사전 투표율 하락폭 큰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청송군
	-19.19	-13.33	-12.89	-12.76	-12.65	-12.54	-12.51	-12.48	-12.25	-12.00
22대 대선 대비 사전 투표율 하락폭 작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충청남도 홍성군	경기도 오산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남도 양산시
	-1.46	-1.94	-1.95	-1.98	-2.16	-2.19	-2.26	-2.42	-2.49	-2.63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진도군은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대비 두 자리수 증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경북 의성군, 경북 김천시 등은 21대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 하락

(단위 : %p)

21대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 증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성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20.31	+11.60	+11.16	+9.94	+9.61	+9.57	+9.49	+9.34	+8.90	+8.32
21대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 감소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고흥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남도 거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상북도 울릉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89	-1.57	-1.45	-1.27	-1.11	-0.93	-0.87	-0.70	-0.60	-0.5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20대 대선 결과와 사전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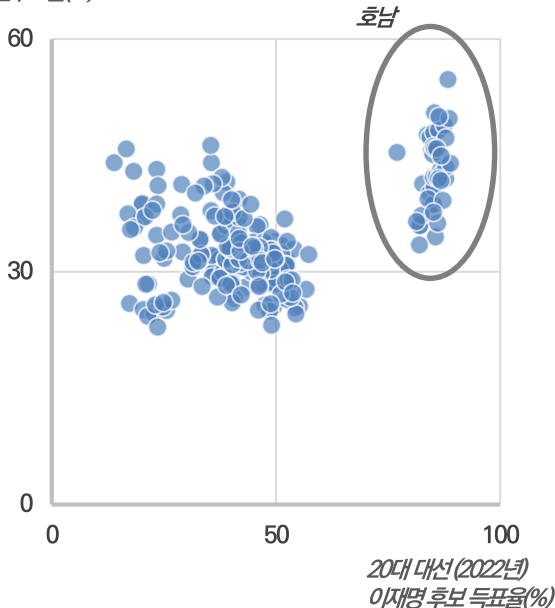
호남과 서울 제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 낮고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결과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호남과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2년 전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본다면, 호남과 서울을 제외한다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의 사전투표율이 낮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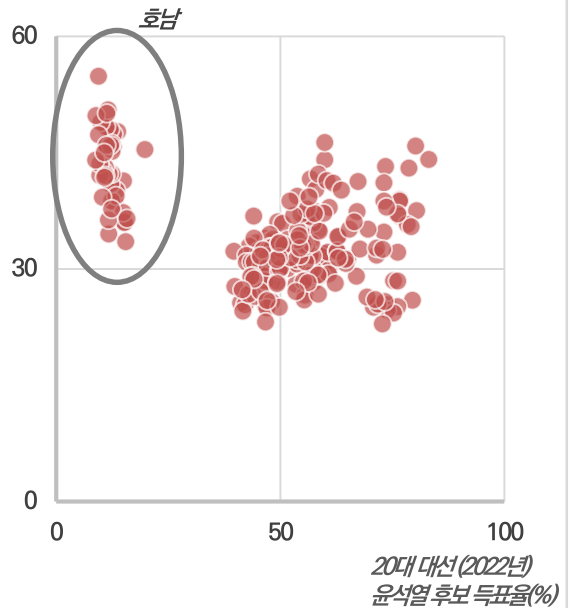
20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 낮고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성 보여

22대 총선(2024년)
사전투표율(%)



22대 총선(2024년)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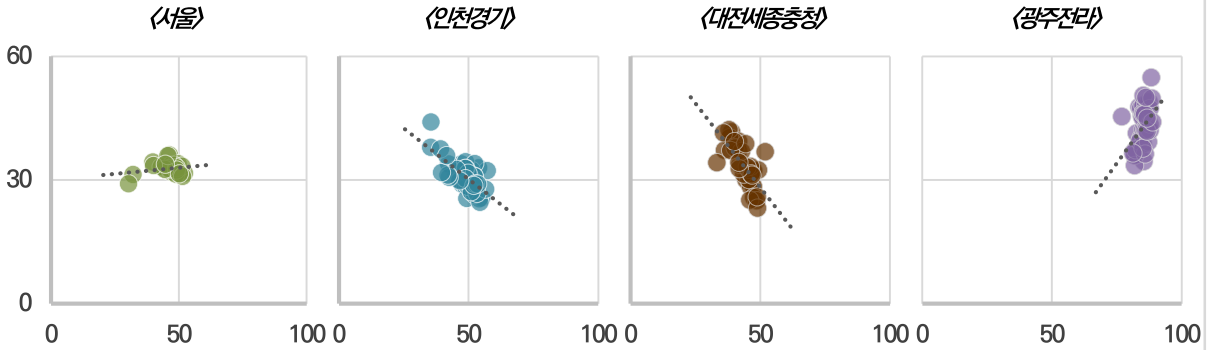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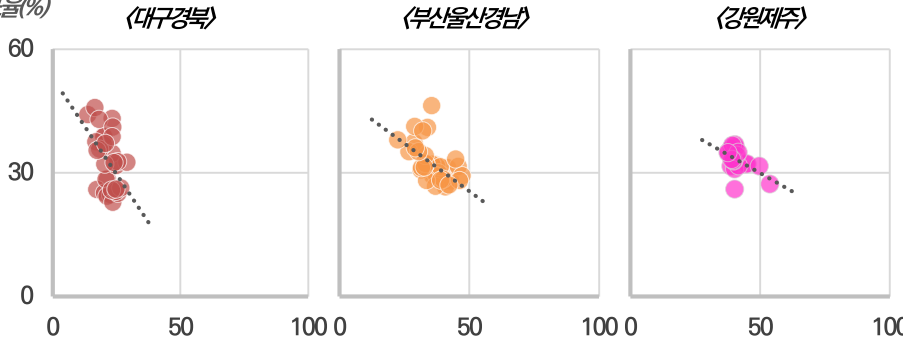
각 권역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22대총선 사전투표율 비교 서울과 호남 제외,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 보여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이재명 후보 득표율(%)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이재명 후보 득표율(%)

	전국 (호남제외)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제주
상관계수	-0.293	0.215	-0.698	-0.693	0.408	-0.457	-0.566	-0.512
R제곱	0.086	0.046	0.487	0.481	0.166	0.209	0.321	0.262
P값	0.000	0.303	0.000	0.000	0.007	0.009	0.000	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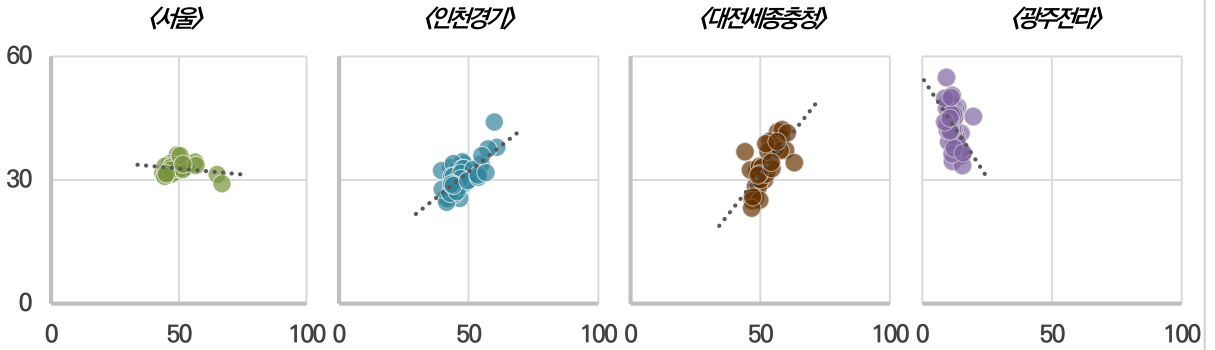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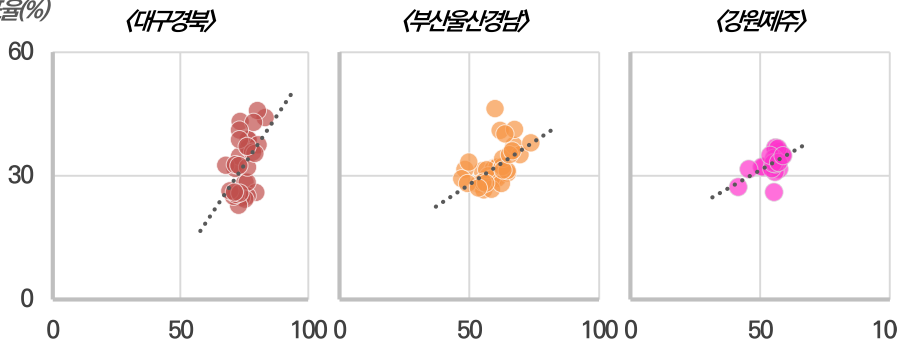
각 권역별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득표율과 22대총선 사전투표율 비교 서울과 호남 제외,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 보여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윤석열 후보 득표율(%)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윤석열 후보 득표율(%)

	전국 (호남제외)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제주
상관계수	0.294	-0.226	0.708	0.703	-0.431	0.477	0.534	0.541
R제곱	0.086	0.051	0.502	0.495	0.186	0.228	0.285	0.292
P값	0.000	0.278	0.000	0.000	0.004	0.006	0.000	0.01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지역 인구 특성과 사전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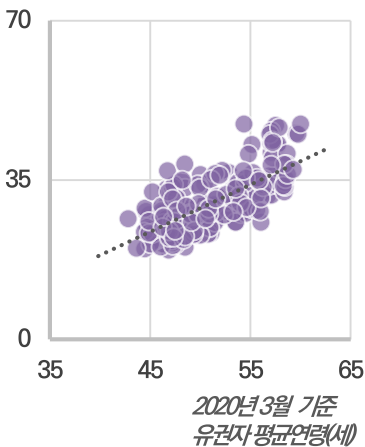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동일한 경향, 다만 상관계수는 낮아지는 추세

각 기초자치단체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을 비교해 본 결과, 유권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전투표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투표참여가 높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2대 총선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60대와 70세 이상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은 각각 89.0%, 9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고령층이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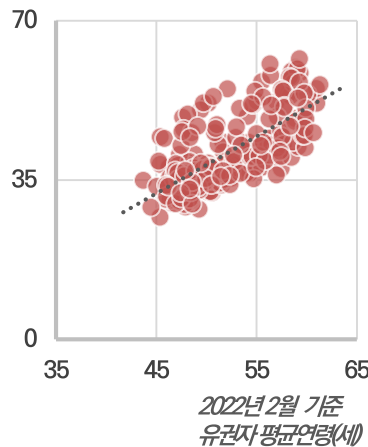
고령층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관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 외에도,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동일한 경향, 다만 상관계수는 낮아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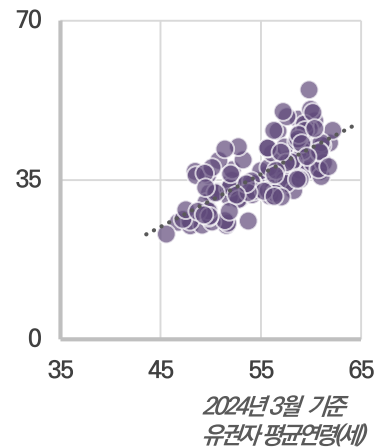
21대 총선 (2020년)
사전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사전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사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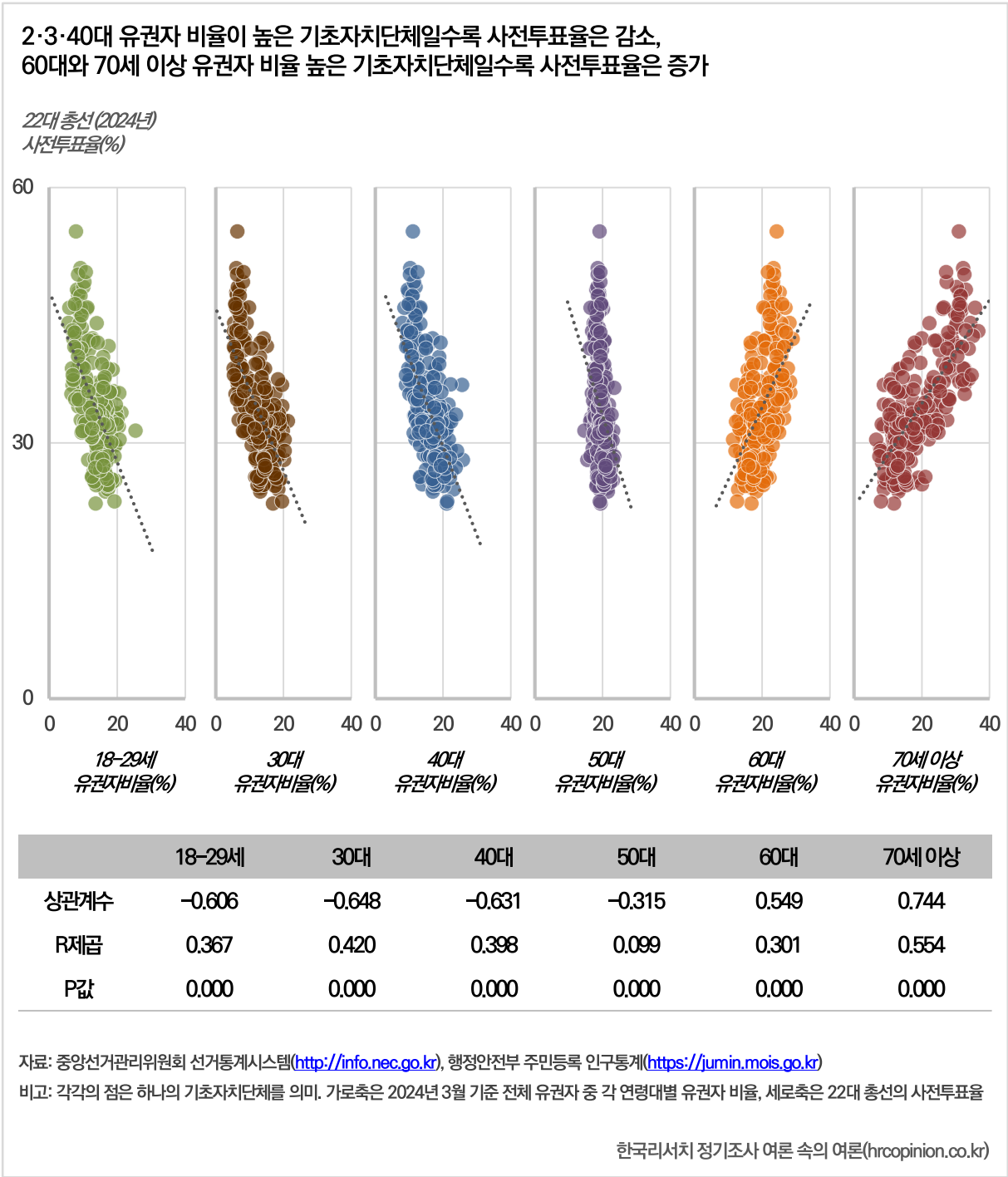
	21대 총선 (2020년)	20대 대선 (2022년)	22대 총선 (2024년)
상관계수	0.733	0.712	0.706
R제곱	0.538	0.508	0.498
P값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시점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만 18세 이상 유권자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선거별 사전투표율

2·3·4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감소,
60대와 70세 이상 유권자 비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사전투표율은 증가

각 기초자치단체별 유권자 구성비율과 사전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